

<보기> 편한 세상 - 문학 '보기 추론 순문편' 1

강 사 : 유 대 종 (158.4)



목차

1. 보기O
 - (1) SO
 - (2) LO

2. 보기X
 - (1) WX
 - (2) EX

3. 보기 TS
 - (1) 안 TS
 - (2) 밖 TS
 - (3) 간 TS

1 보기 읽기의 열쇠

1. 보기 O

(1) SO (sentence)

< M E M O >

2009학년도 수능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잠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밖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④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1. <보기>를 바탕으로 ④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S.O. 해결법!>

2012학년도 수능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과랑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A]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B]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들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땀이 몇 번 수습되고

[C]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D]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E]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2.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호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 ①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② [B] :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③ [C] :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④ [D] :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흰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⑤ [E] :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S.O. 해결법!>

2007 6월 모의평가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굵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섶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 송아지 물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숨씨에 향그러운 꽃지집

어질고 고운 그들 뱃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것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현대시조」 -

3.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러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리고 있군.
-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S.O. 해결법!>

2007 9월 모의평가

(가) 향단(香丹)아 ㉠ 그뱃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정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올리나
㉦ 날으는 새여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달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B]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정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4.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S.O. 해결법!>

5.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 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S.O. 해결법!>

2014년 6월 모의평가 a형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A: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읊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 김소월, 「접동새」-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S.O. 해결법!>

2003 9월 모의평가

(나)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에 지나지 않는다.

⑥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내외들이여 그대들두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지어미는 지애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애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어느 가시덤불 속구렁에 누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यो
청태(靑苔)라도 자옥이 끼일 일인 것이다.
-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

(다)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짧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7.<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다)의 화자가 (나)의 화자에게 충고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보 기>
두 시가 씌어진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가치 공백의 시대였다. 사회를 이성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은 사라지고, 그 대신 치열한 내면 성찰과 자기 반성으로써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정신 자세가 요구되었다.

- ① 인내하는 자세 없이 고상한 이념만을 외친다면, 그것은 대담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임니다.
- ②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 좀더 일상에 충실합시다. 그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③ 시대의 이념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찾겠다는 것입니까?
- ④ 현실을 좀더 엄정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치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⑤ 당신은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유자적한 삶의 자세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S.O. 해결법!>

2002학년도 수능

(가)

물근 2를 혼 고벽 뒤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름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흐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년 집 우뿔 저비오,
서르 靚(퀸)하며 서르 갖잡느닌 물 가운데 곱머기르다.
늘근 겨지른 조희를 그려 장괴파늘 퓌글어늘,
겨른 아드툼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낫글 낙술 퓌근다.
한 病(병)에 얻고져 호는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겨구맛 모미 이 밧괴 다시 므스글 求(구)호리오.
- 두보, 강촌(江村)

(가) A형을 위한 해석

맑은 강의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그윽하다.
절로 가며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르다.
늘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관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이 친한 몸이 이것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8. <보기>를 참조할 때 ㉠의 생활 모습과 내면 세계에 가장 가까운 것은? [2.2점]

<보 기>
두보는 처자를 데리고 난리를 피해 줄주림 속에 곡강(曲江)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의 심경을 그린 작품이 바로 '강촌(江村)'이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는 거기서 너무도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의 뜻과 시는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고 백성을 아꼈다.

- ①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에 거문고를 곁에 놓고 사계절 흥취를 많은 꽃에 부쳤으니 이 몸도 태평시절 성은(聖恩)에 젖었는가 하노라. - 송타
- ②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 말동 하여라. - 김상헌
- ③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齋)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재미(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엿것인들 귀 뉘 땅에 났더니. - 성삼문
- ④ 이 몸이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 서호(西湖) 옛집을 다시 끌고 누웠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할지나 님 못 봐어 하노라. - 이충
- ⑤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붉은 노을 가득하니 이 진경 거기르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 김득연

<S.O. 해결법!>

2000학년도 수능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아 새여
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흥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 바브란 쏘 엷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청산별곡靑山別曲>

(나) 추(秋)·2
슈국(水國)의 ㄱ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꺨지 용어(容與)흥자*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4
그러기 떻는 밧기 못 보던 뵈 뵈노고야
이어라 이어라
㉣ 낙시질도 흐려니와 추ㅣ(取)흔 거시 이 흥(興)이라
지국총 지국총 어스와
석양(夕陽)이 비치니* ㉤ 천산(千山)이 금슈(錦繡)ㅣ로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나) A형을 위한 해석
추사2
강촌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이 썩 있다.
뎡 들어라 뎡 들어라
만경창파에 실컷 놀아보자.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속세를 돌아보니 멸수록 더욱 좋다.

추사4
기러기 날아가는 밖으로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배 저어라 배 저어라
낙시질도 하려니와 내가 취한 것이 (바로 자연을 즐기는) 흥취로구나
빼그덕 빼그덕 어기여차
석양이 비치니 온 산이 비단이로구나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용어흥자 : 마을대로 하자, 안겨 보자
* 비치니 : 비치니, 눈이 부시다.

9. <보기>를 참조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 점]

<보 기>

갑 : 차라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배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회고 흰 결백한 몸으로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쓰겠는가?

을 : 강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강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 ① (가)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화자가 '을'이라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에 적응하여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가 '갑'이라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 해결법!>

(2) LO (LINK)

< M E M O >

2005학년도 수능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향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용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이 뇌이기 전
도루 뗏패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들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갖추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중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 꿈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평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올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육사,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 ‘반질고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나)

- ㄱ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 아름다운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 ㄴ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 ㉡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ㄷ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 ㉢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ㄹ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 ㅁ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ㄴ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광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1. ㉠~㉤ 중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1점]

<보 기>

(가)의 ‘찾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신작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찾길’은 이 시의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L.O. 해결법!>

2001학년도 수능

(나) 릿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시는 창(窓)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는 새잎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 홍량의 시조

2. (나)의 시어 가운데 <보기>의 밑줄 친 구절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안녕 친구야.

네가 진학 간 지도 일 년이 지났구나. 그 곳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기억 속에 오롯이 남
아 있다. 보고 싶구나, 친구야. 내 마음을 편지와 함께 이 테이프에
담아 보낸다.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지. 다가오는 겨울 방학에는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이다. 너를 다시
만날 날이 무척 기다려지는구나

- ① 릿버들 ② 님 ③ 창(窓) ④ 밖 ⑤ 밤비

<L.O. 해결법!>

2012 9월 모의평가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끌어 없드리게 했지만
막상 목청을 떴어 내고 ㉣ 낡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견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릴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3.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
(天)’ 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 라고
합시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에타
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에(蒼厓)에게」-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L.O. 해결법!>

2010 6월 모의평가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 안민영 -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4. (다)를 <보기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1>의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보 기>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 기>

	금	강	일	만	이	천	봉	이		눈	아	니	면		옥	이	로	다						
	월	성	루			울	라	가	니		천	상	인			되	었	어	라					
	아	마	도			서	부	진	화	부	득			은	금	강	인	가		하	노	라		
* || : 한 음보의 길이

<L.O. 해결법!>

2007 9월 모의평가

(가) 향단(香丹)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릴* 줄이 있으라

간 들고 혼자 앉아 먼 뉘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뎛더라*
아마도 입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으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얗: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릴: 부러워함.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약뚫더라 : 약았더라.

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 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현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L.O. 해결법!>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날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테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쉬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끝일까 하노라 <6장>

-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6.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L.O. 해결법!>

1998학년도 수능

[62~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흩비친 제, 사름은마니와 늘새도 굶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날 너 므스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남겨신 락 쏘이고져, 모첨(茅簷)* 비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 득(脩竹)*의 험가렵도 하도 할샤. 님히 수이 디어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터 던공후(銅鑿篋)* 노하 두고, 쏘의나 님을 보려 킷밧고 비겨시니, 양금(鴛 衾)도 추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쟤고.

하르도 열두 세 홉 들도 실흔 날, 저근덧 실각 마라 이 시름 님자 하니, 므옴의 락쳐 이셔 골슈(骨髓)의 쟤터시니, 편작(編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허리. 어 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석어

2011 9월 모의평가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사업 아나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락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렷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2장>

디어 범나 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드든
늘애로 님의 오신 울드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 르서도 내 님 조초려
호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다) A형을 위한 해석

(하늘과 땅이 닫히고 막히어 흰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한 빛인 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짐승도 끊어져 있다.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는 이 곳도 출기가 이리한테)
(입금이 계신 곳(북쪽)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리.)
(따뜻한 봄기운을 부치어 내어 입 계신 데 쏘이고 싶구나)
(초가집 처마 비친 해를 입금 계신 곳에 올리고져.)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 올려)
(해는 저물었는데 긴 대나무에 기대어 서서 이런 저런 생각함이
많구나.)

(짧은 겨울 해 쉽게 지고 긴 밤을 꽃꽃히 앉아)
(푸른 등 걸어 놓은 곁에 자개로 수놓은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서나 일을 보려 턱을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원앙새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나 쉼표?)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나마 생각을 임 생각을 말아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마음 속에 맺혀 있어 뼈 속까지 사무쳤으니(깨물었으니))
(편작과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 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입의 탓이로다.)
(차라리 사라져(죽은 뒤) 호랑나비 되오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고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으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서도 나는 입을 따르려 하노라)

- *쇼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옥누(玉樓) : 옥황상제가 있는 곳
- *모첨(茅簷) : 초가집 처마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슈뚝(脩竹) : 긴 대나무
- *던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7.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다)에서 찾으시오. [2점]

-<보 기>-

冬至(동지)스들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① 옥누(玉樓)(입금이 계신 곳) ② 양춘(陽春)(따뜻한 봄 기운)
- ③ 홍상(紅裳)(붉은 치마) ④ 양금(鴛鴦)(원앙새 수 놓은 이불)
- ⑤ 골슈(骨髓)(뼈 속)

<L.O. 해결법!>

1996학년도 수능

(가) 자야곡(子夜曲)

이육사

수만 호 비치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짙은 소금이 저려

㉣ 바깥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냐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드리느라

수만 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 이끼만 푸르러라

(나) 삼수갑산(山水甲山)

김소월

삼수갑산(山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노
오고가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노 내가 오고 내 못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8. (가) ㉠~㉤ 중 <보기>의 '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보 기>-

(나)에서 '새'는 삼수갑산의 첩첩 산중에 있는 화자의 마음
을 고향으로 실어 나른다고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L.O. 해결법!>

2004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

백석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 누어서
 어느 아침 ㉠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띄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9. (가)의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 비밀의 방에 이르고자 한다. 비밀의 방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다. 미궁을 통과하는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미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 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열리는 문이다. 테세우스는 미궁의 문을 찾아 실 끝을 미궁의 문설주에 묶어 놓은 뒤 자신의 예지와 본능으로 미로를 더듬어 비밀의 방에 이른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인 후 실을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온다. 이 '미궁의 신화'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테세우스 ② 미노타우로스
 ③ 미궁의 문 ④ 비밀의 방
 ⑤ 실

<L.O. 해결법!>

2. 보기 X
(1) WX(W-X)
② A-B

2008학년도 수능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흥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출공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W.X. 해결법!>

2007학년도 수능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뒤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2.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이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낡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육사를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W.X. 해결법!>

2004학년도 9월 평가원

(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房)은 우주(宇宙)로 통(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나

지조(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3. <보기>는 문화적 상징의 맥락에서 (다)의 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다)의 시어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백골 :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목상의 대상
- 방 : 공포, 밀폐, 비밀, 몽상, 폐쇄적 환상
- 어둠 :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정신적 힘의 교류
- 바람 : 권능, 영감, 전달, 공기, 순수성과 열정
- 개 : 감시, 충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매(靈媒)

- ① ‘백골’은 시적 자아의 빈약하면서도 정결한 삶을 상징한다.
- ② ‘방’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깊숙히 존재하는 정신적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어둠’은 시적 자아의 고통의 근원이자 영혼을 성숙시키는 존재이다.
- ④ 2연의 ‘바람’은 시적 자아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대기의 힘을 의미한다.
- ⑤ ‘개’는 시적 자아의 영혼을 일깨워 우주로 안내하는 존재이다.

<W.X. 해결법!>

2011학년도 수능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
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W.X. 해결법!>

2013학년도 수능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썰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간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해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해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 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W.X. 해결법!>

2010학년도 수능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지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포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W.X. 해결법!>

2004학년도 수능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빗갈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를 오지 않는다고,

7.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나)의 ㉠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밀상적인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 ㉠과 같은 표현도 신비롭고 환상적이면서 ‘이중섭’의 그리움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군.
- ②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와 ㉠이 가리키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
- ③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의 성을 표현한 것 같아. ㉠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 ④ 떠 있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해의 몫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돌린 것 아닐까. 마찬가지로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
- ⑤ 바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도 인간의 시선으로 포착한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테서 나온 시적 발상이라고 생각해.

<W.X. 해결법!>

2014학년도 수능

[41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가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色蒸雨)」 -

후두기는: 후두둑 떨어지는.

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 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제2연 :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 된다.
- ③ 제3연~제4연 :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 ‘어디에’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W.X. 해결법!>

2003학년도 수능

(가)

나는 ㉠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게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뻔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자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회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볼로 만나려 한다.

㉠ 벌써 솟이 된 뱀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구나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9.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 기>

- 작은 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 ① ㉠ 나룻배: '행인'이 피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W.X. 해결법!>

2007 9월 모의평가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렬* 줄이 있으랴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 만승(萬乘)*이 이만 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울 일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하얗: 시골에 사는 건물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부렬: 부러워할.

* 삼공: 삼 정승.

* 만승: 천자(天子).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약뚫더라: 약았더라.

10.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운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저 아들에게 맡기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먼 뵈'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들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W.X. 해결법!>

2009 6월 모의평가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결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목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훌륭한 군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11.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게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W.X. 해결법!>

2009학년도 수능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엇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홀홀하여*** 일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A]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전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12.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재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W.X. 해결법!>

2004학년도 수능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隕)*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더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 평무 : 풀이 우거진 들판.
- * 녹준 : 술잔.
- * 취병 :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 반송 :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4형을 위한 해석>
 일곡은 어디인가? 갓머리처럼 우뚝 솟은 바위(관암)에 아침해가 비쳤도다.
 잠초 무성한 들판에 안개가 걸히니, 먼 곳 가까운 곳 가릴 것 없이 그림같이 아
 림답구나.
 소나무 숲속에 맞좋은 술이 담긴 술통을 놓고 벗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

이곡은 어디인가? 화암의 늦봄 경치로다.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멀리 들판으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경치 좋은 이곳을 모르니, (꽃을 띄워 보내) 알게하여 찾아오게 한들
 어더리.

삼곡은 어디인가? 푸른 병풍을 둘러친 듯한 절벽인 취병에 녹음이 짙어졌도다.
 푸른 숲 속에서 산새들은 높이라 낮추라 노래를 부르는 때에
 키가 작고 가로써진 소나무가 많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으니 여름같이 맑게 시원
 스럽기 그지없구나.

13.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
 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나 판넬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
 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
 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
 의 풍경을 그려 내하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
 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
 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 ②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W.X. 해결법!>

2013 9월 모의평가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히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어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W.X. 해결법!>

2014년 6월 모의평가 b형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컷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낮잠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종오, 「동승」-

1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W.X. 해결법!>

2010 6월 모의평가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우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잊어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돌 곳 못돌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철차 한 대 울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붉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술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매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보기>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맑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 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아.
-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술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W.X. 해결법!>

16.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학년도 수능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골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 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A]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라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짊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 ‘반진고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

17.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발표 연도 : 1938년
- 작가 소개 :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②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W.X. 해결법!>

② 보기 - B

2006학년도 수능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달력.

1.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터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
 - 이미지 : ……
 - 특이한 표현 :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

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얏다’를 ‘하이얏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W.X. 해결법!>

2014년 9월 모의평가 a형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앓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W.X. 해결법!>

2004학년도 수능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갇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 평무 : 풀이 우거진 들판.
- * 녹준 : 술잔.
- * 취병 :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 반송 :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3. <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 ‘말’로 지어지고 불러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W.X. 해결법!>

2010학년도 수능

(다)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단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랴 내리랴 모이랴 홀으랴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러곰 좇니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뵈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튿날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 송순, 「면양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 사정 : 모래톱.
- * 노화 : 갈대.

(다) A형을 위한 해석 무등산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슨 생각을 하노라고
 일곱 굽이가 한 곳에 움츠려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하고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니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내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회지나 말지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뒤흔는 듯, 긴 비단을 짝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노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고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니느냐.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 뽐내며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늘어져 있거든
 멀리 가까이 있는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하구나.

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양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양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양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양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W.X. 해결법!>

2002학년도 수능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물근 水澗 흔 고비 渴飢 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름 江村(강촌)에 일마다 幽深(유심)흐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 우희 저비오,
 서로 親(친)하며 서로 갓갓느니 몹 가운데 羹며기로다.
 ㉡늘근 겨지븐 姸희를 그려 장기판을 浬글어늘,
 저른 아드론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술 땡느나.
 한 病(병)에 엇고져 흐는 바는 오직 藥物(약물)이니,
 ㉢저구맛 모미 이 밧기 다시 므스글 求(구)호리오.
 - 두보, 강촌(江村)

< A형을 위한 해석>

맑은 강의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그윽하다.
 절로 가며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로다.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많은 병에 엇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이 천한 몸이 이것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오?

(나)

한 잔 먹세그려. 또 한 잔 먹세그려.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계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딱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우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다)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 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桃花) 행화(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소나.
 시비(紫扉)에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間中眞味)를 알 이 없이 혼자로다.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울울리 : 우거진 속.
 ***소요음영 :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읊조림.

<A형을 위한 해석>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아단스럽다. 숲 속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다.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도 앉아 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

5. <보기>의 관점에서 (가)~(다)를 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나라의 노래는 음란스러워 말할 것이 못 된다.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노래는 방탕한 뜻이 있고 거만한 태도가 외설스러워 숭상할 바가 아니다. 이별(李鵬)이 지은 노래가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이것이 더 낫다고들 한다. 하지만 세상을 우습게 알며 공손한 뜻이 없는 태도가 온유(溫柔)한 태도가 적어 애석하다. 요사이 나는 한가롭게 지내며 병을 고치는 틈틈이 마음에 감동된 것을 한시(漢詩)로 나타내곤 했다. 그런데 한시는 읊조릴 수는 있지만 노래가 되지는 않았다. 마음에 감동된 것을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로 엮어야 한다.
 - 이황, 도산육곡 발(陶山六曲跋) -

- ① (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담고 있어 좋군.
- ② (나)는 세상을 호탕하게 살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좋군.
- ③ (다)는 음란하거나 외설스러운 태도가 없어 좋군.
- ④ (가)와 (다)는 한가롭게 지내는 가운데 느낀 감동을 표현해서 좋군.
- ⑤ (나)와 (다)는 시속의 말로 지어져 노래할 수 있어 좋군.

<W.X. 해결법!>

2014년 9월 모의평가 b형

(나)
 [A: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B: 뽕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C: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폐쇄되어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줘.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줘.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W.X. 해결법!>

2 지문 - A

2015학년도 수능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끊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휘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해어름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풍한 냉들이

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W.X. 해결법!>

2015학년도 수능

(가)

[A] 외나모 빠른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기터 플터이서 뵈기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구비 내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산중을 미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남여(籃輿) 완보(緩步)흐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흐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怨)흐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A형을 위한 해석>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 불정대 위에 오르니
 (조물주가) 가파른 절벽을 허공위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굽이를 마디마디 베어다가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
 여행 안내서에는 열두 굽이였는데, 내가 (직접) 보니 그 이상인
 것 같구나
 이태백이 지금 (옆에)있어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폭포)가 십이 폭포보다 낫다는 말을 못 할 것이다.

내금강(산)을 계속 보겠는가, 이제 외금강(바다)으로 가자꾸나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 위에 오르니
 맑은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는 산새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구나

3.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W.X. 해결법!>

2004 9월 모의평가

(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썩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읍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饈)*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 되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鵝百結)* 되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 한가히 베는 농부 묻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옥식진찬, 금의화식 : 좋은 음식과 의복.
- * 맥반염장, 현순백결 :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 용정 : 곡식을 찼음.

4.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빗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

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W.X. 해결법!>

(2) EX(emotionX)

< M E M O >

2011 6월 모의평가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다
 어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계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과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E.X. 해결법!>

2014학년도 수능

(나) [A][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툇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음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툇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B][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항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짝씩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C][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방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실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툇툇'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E.X. 해결법!>

2013 6월 모의평가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과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 의태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담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들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 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E..X. 해결법!>

2002학년도 수능

(나)

한 잔 먹세그러. 또 한 잔 먹세그러. 꽃 꺾어 수(數)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러.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 위에 원승이 휘파람 불 때야 뉘친들 어찌 하리.

- 정철. 장진주사(將進酒辭) -

4.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승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 ① 그렇게 바꾸면 무덤 주변의 스산한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 ②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닮은 소재로 표현해야 해.
- ③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을 통해 죽음의 쓸쓸함을 신비롭게 표현한 것을 놓치게 돼.
- ④ 원승이가 어떤 정서를 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 ⑤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어도 여러 글을 통해 원승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해.

<E..X. 해결법!>

2011학년도 수능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찾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괴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흘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꾼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 두 군데에 불과하라?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하고, 어느 것이 뛰어난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럼 담백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되어 큰 불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E.X. 해결법!>

2013학년도 수능

2003 9월 모의평가

(나)

벗님네 ㉠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머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이 날마다 흥동(興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市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습차고 오금 아파
 ㉣ 창 닫고 더운 땅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회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가)

궁벽하게 사노라니 찾아오는 사람 없어	窮居罕人事
온종일 의관도 갖추지 않고 있네.	恒日廢衣冠
낡은 집엔 향랑각시* 떨어져 기어가고	敗屋香娘墜
황폐한 들판엔 ㉠ <u>팔꽃</u> 이 남아 있네.	荒畦腐婢殘
병 많으니 따라서 잠마저 적어지고	睡因多病減
글 짓는 일로써 수심을 달래 보네.	愁賴著書寬
비 오래 온다 해서 괴로워할 것 있나	久雨何須
곰	問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을.	晴時也自歎

- 정약용, 구우(久雨) -

* 향랑각시 : 노래기. 노린내가 나는 벌레의 일종.

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문관-작자-또 다른 인물-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 기>

정약용은 시를 쓸 때 시적 대상이나 사회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지식인의 고뇌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종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농촌 생활에서 겪는 노동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군.
- ② ‘오래 내리는 비’는 어두운 시대 현실에 대한 비유로군.
- ③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는 선비의 모습을 잘 형상화했군.
- ④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과장 없이 진솔하게 묘사한 것 같아.
- ⑤ 주위의 다양한 사물에 대한 관찰이 이 시에도 나타나 있어.

<E..X. 해결법!>

<E..X. 해결법!>

2008학년도 수능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소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⑥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려 감.

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E..X. 해결법!>

2010 9월 모의평가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녘**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쪼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 * 진준가 : 진주인가.
- * 한가 : 가장 끝 부분.
- * 청하 : 푸른 연잎.
- *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 제세현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을 중시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의병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끝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E..X. 해결법!>

2013 6월 모의평가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개맡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주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너러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올라 수정렴(水晶簾) 걸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비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꺾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낱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쓰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뜻뜻이앳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러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넘겨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E.X. 해결법!>

2014년 9월 모의평가 a형

[A: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B: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1.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 1 :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 2 :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 3 :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 ㉠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 ㉡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 ㉢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 ㉣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 ㉤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E.X. 해결법!>

3. 보기 TS

(1) 안 TS

2003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A] 아! 그렇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들에 ㉠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1. (나)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그렇다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이 맑은 옥들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기인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라 내 혼자 마음은

- ① 구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 ②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 ③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시적 진술을 좀 더 분명히 하여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T.S. 해결법!>

1999학년도 수능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꽃

이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북(北)쪽 툄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어

한바다 복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2. (가) 시의 3연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기>와 같았다. 고쳐 쓰기를 통해 얻은 시적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평한 것은? [2점]

—<보기>—

가시는길 발거름마다
뿌려노흔 그릇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① 어휘를 바꾸니 시적 대상이 바뀌었군.

- ② 피동 표현을 첨가하니 화자가 바뀌었어.
- ③ 시행의 길이를 줄여서 고독의 의미를 강조했군.
- ④ 심상을 다양화하여 자연과의 친화를 보여 주었군.
- ⑤ 시어를 바꾸고 글자 수를 조절해 운율상의 배려를 했군.

<T.S. 해결법!>

2004 6월 모의평가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A]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뱀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불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뿔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

3. (가)의 [A]를 바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은?

<보 기>

- 원시(原詩)의 발상을 활용한다.
-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잘 살린다.

- ① 산은 날더러 나무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풀이 되라 하네 / 눈보라 몰아치면 숲 속에 몸 낮추고 / 바람 거세거든 강가에 누우라네
- ② 산은 날더러 별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달이 되라 하네 / 산등성이 넘어서 눈물을 글썽이고 / 강 언덕 지나서 해사하게 웃으라 하네
- ③ 산은 날더러 불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물이 되라 하네 / 고난의 때 오거든 어둠 속 불 밝히고 / 소생의 때 오거든 생명

- 의 물 적시라네
- ④ 산은 날더러 새가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갈대가 되라 하네 / 눈보라 시리거든 산 너머로 날아가고 / 비바람 드세거든 강물 속에 잠기라네
 - ⑤ 산은 날더러 햇살이 되라 하고 / 강은 날더러 안개가 되라 하네 / 암흑의 때 오거든 어둠을 살라 먹고 / 새벽녘 피어오르는 강 안개가 되라네

<T.S. 해결법!>

2013 9월 모의평가

(가)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잇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훌륭한 군사들이 낫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잔]** 에 절로절로 늠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진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면만
 두세 이랑 밭 눈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 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소 빌 이 : 소 빌리는 일.
 * 빈이무원 :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심절벽(千尋絕壁) 첫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 (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落華) 광풍(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위 하노라.

<제4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 백조 : 모든 새.
- * 내곳 :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뚱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범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일토당토않은 구역질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조직 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 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흑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 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쌍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회멸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롭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보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 원헌 :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 석숭 :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T.S. 해결법!>

2009 9월 모의평가

(가) 노래가 낫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밋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37. [A] 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T.S. 해결법!>

(2) 밖 TS

2005학년도 수능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갯길」이 뇌이기 전

도투 뗏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물음을 울었다고 한다.

[A]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갯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야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썰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테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 짓두광주리 : ‘반진고리’의 방언.
-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나)

- ┌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 ㉠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 └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 ┌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 ㉡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일사귀마다 적힌
- ┌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 ㉢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롭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 ┌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 ㉣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 └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짓 아래 서 있으면
 ㉠ 회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 관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 도롱이나방의 집.

1. [A]를 <보기>와 같이 회곡으로 구성할 때, 시의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대사는?

<보 기>

털보네 안방
 (갓 출산한 털보 처와 산파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파 : 아들이야. 애아버지를 꼭 빼닮았구먼.
 ㉠ **털보 처** :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마을 빨래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1 : 털보네, 아들 낳았다면서요?
 ㉡ **아주머니 2** : 그러게요. 자식새끼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
 ㉢ **아주머니 3** :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쫓쫓.

털보네 안방
 (등불이 가물거리는 어두운 방. 털보와 털보 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털보 처** :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없는 살림에 입만 자꾸 늘고……. 어떡해요, 앞으로…….
 ㉤ **털보** : 걱정 말구려. 저 떡을 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잖소.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놈, 참 잘도 자네. 이놈이 다 자랐을 때면 세상도 달라져 있겠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T.S. 해결법!>

2010 6월 모의평가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워노니, 박나비*처럼,
 가너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敎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 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2.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단적 어조로 낭송.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 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⑤ ㅅ,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T.S. 해결법!>

2004 6월 모의평가

(다)

남다히*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뫼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가.
 산천이 어두운데 일월(日月)을 어찌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라.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히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江天)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남다히 소식을 더욱 아득하구나.
 모쥬(茅簷)** 찬 자리에 밤중쯤 돌아오니
 반벽(半壁) 청등(靑燈)은 누굴 위해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잠시 동안 역진(力盡)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玉) 같은 몸이 반이나마 늙으셨네.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죄려니,
눈물이 쏟아지니 말씀인들 어찌하며,
정(情)을 못 다 하여 목조차 메이는데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아아 허사(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잠결에 일어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연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져서 낙월(落月)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드시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넘다히 : 임 계신 곳.
** 모첩 : 초가집.

3. <보기>를 (다)의 화자가 쓴 일기의 일부라고 할 때, 작품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보 기>

① 오늘도 나는 그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기진하여 밤길을 더듬어 돌아왔을 때, ② 나를 기다린 건 쓸쓸한 등불뿐이었다. 홀로 빈방에 앉아 있다가 ③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꿈에 본 그이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④ 실컷 하소연하다가 꿈에서 깨어 보니 그저 허망할 뿐이었다. ⑤ 그의 곁에 가고 싶다. 아, 그 날이 언제 올까?

<T.S. 해결법!>

- 박제삼, 흥부 부부상(夫婦像) -

4.<보기>에 비추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 '흥부가'는 극단적인 궁핍의 상황을 가족애로써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니리와 창, 비장한 장면과 익살스러운 장면을 교대로 제시함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매력을 준다.

- ① 민중들의 건강한 세계관을 부부애에서 찾아내었다.
- ② '흥부가'에서 제시된 윤리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였다.
- ③ 산문과 운문을 교대하여 판소리의 리듬감을 계승하였다.
- ④ 판소리의 해학적 웃음을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웃음으로 변용하였다.
- ⑤ 눈물과 웃음을 교대로 제시하여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판소리의 특징을 살려내었다.

<T.S. 해결법!>

(3) 간 TS

2002학년도 수능

(나)

추억에서

박제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가) 흥부 부부(夫婦)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金)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어 주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④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1.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밋소리
빈 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① '어머니의 힘든 노동'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② 방 안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시상(詩想)을 집약하는 것도 좋겠군.
- ③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화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 ④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려 한 원시(原詩)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 써야겠어.
- ⑤ 어머니의 일을 채소 장사로 바꾸고, 그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T.S. 해결법!>

2001학년도 수능

(라)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R. Frost)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 ①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2. ㉠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보기> 시의 화자가 들려줄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당시(當時)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사 돌아왔는고
이제나 돌아왔나니 딴 데 마음 두지 않으리

- 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겠다고, 한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게나.
- ②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그때그때 지름길을 택해 가게나.
- ③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법이네. 가장 중요한 목표를 기준으로 갈 길을 택하게나.
- ④ 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 이 길을 가면 저 길이 부러울 테니 소신을 갖고 한 길만 가게나.
- 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지 않던가? 한번 가면 끝까지 가야 할 길이니 처음 선택을 잘 하게나.

<T.S. 해결법!>

2014학년도 수능

(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을 여의고
내 마음 들 곳이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다니는구나.

-왕방연

(나)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문혔느냐.
잔(蓋) 자바 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임제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罔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하노라

-원원석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만월대: 고려의 왕궁 터.
목적 : 목동의 피리.

3.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紅塵(홍진)에 못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흔고, 벗 사름 風流(풍류)

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긴 마는, 山林(산림)에 못쳐 이서 至樂(지락)을 맛들 것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얹피 두고,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서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꺾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A형을 위한 해석>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조물주가 칼로 재 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모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고.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T.S. 해결법!>

2008 9월 모의평가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頰)*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_____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_____ [A]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_____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_____
 -이용악, 「폴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키운.
- * 아무울 만, 니코리스크: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롱한: 춥고 차가운.

4.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아라사: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 젊어서 한창 댄/ 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울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T.S. 해결법!>

2007 6월 모의평가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B]
 ㉠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_____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울엄매야 울엄매, _____
- 별밭은 또 그리 멀리 _____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_____
 손사리케 떨던가 손사리케 떨던가. _____
-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D]
 오명 가명 _____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울엄매의 마음은 어떡했을까. _____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 박재삼, 「추억에서」 -

5.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축축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T.S. 해결법!>

2004 6월 모의평가

(가)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무
 잡초나 일개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무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불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지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

(나)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寒地)의 바람
 바다 앞의 집을 흔들고
 긴 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紙錢)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꺼버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데로 내려간다.
 정박(碇泊) 중의 어두운 용골(龍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港口)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는 수삼 개(數三個)의 눈송이
 하늘의 새들이 따르고 있었다.

- 황동규, 기항지(寄港地) I -

6. (나)를 쓴 시인은 이후에 같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이를 (나)와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기항지(寄港地) II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두고 갈 것은 없다, 선창에 불빛 흘리는 낮익은 배의 구조
 (構圖)
 밧줄을 푸는 늙은 뱃군의 실루엣
 출렁이며 끊기는 새벽 하늘
 뱃고동이 운다
 선짓국집 밝은 새벽 취기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철새의 전부를 남북(南北)으로 당기는
 마음의 마찰음(音) 끊기고
 바람 받는 마스트의 검은 깃발
 축대에 바닷물이 튀어오른다
 누가 소리죽여 웃는다
 아직 젊군
 다색(多色)의 새벽 하늘.

- ① '기항지'라는 제목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관조적 어조에서 열정적인 어조로 바뀜으로써 시적 상황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하늘'이 '다색의 새벽 하늘'로 바뀜으로써 시간적 배경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정박했던 배가 출항하고 있는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⑤ 불안하고 우울했던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뀜으로써 화자의 심리 변화가 암시되고 있다.

<T.S. 해결법!>

2003 9월 모의평가

(나)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리마는
 두세 이랑 ㉠ **발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粥)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앓겠노라
 내 빈천(貧賤) 슬피 여겨 손을 저어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럽게 여겨 손을 치며 다가가라
 인간(人間)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生涯) 이라하되 설은 뜻은 없노매라
 ㉡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히 여기노라
 평생(平生) 한 뜻이 온포(溫飽)에는 없노매라
 태평천하(太平天下)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통우(信朋友) 그르다 할 이 님 이시리
 ㉢ **그 밖의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렷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단사표음(簞食瓢飲) : 대나무 도시락과 표주박에 든 물.

<A형을 위한 해석> 보잘것 없는 이 몸에 무슨 소원이 있으리요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발과 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가오랴?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여도 원망하지 않음을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라하되 서러운 뜻은 없다. 한 도시락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는 없다.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밖에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겠노라.

7. (나)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 기>

보리밥 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리 있으랴.**

- 윤선도, 만흥(漫興) 2 -

- ① ㉠에는 마음의 평온을 얻은 화자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다.
- ② ㉠에서 '그 밖의 남은 일'은 먹고사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 ③ ㉡을 통해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 ④ ㉡의 '그 남은 여남은 일'에는 현실에 대한 관심은 포함되지 않아.
- ⑤ ㉠과 ㉡은 화자의 생활 지침이 되는 신념을 보여주고 있어.

<T.S. 해결법!>

2014년 6월 모의평가 a형

[A: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넬까.
 ㉠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램다 해도 시집살이 더 램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땅아 찢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머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아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머니 호랑새요 시아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뽀족새요
시아지비 뽀족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씩는 새세.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져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져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배갓머리 소(沼) 이웠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8.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할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T.S. 해결법!>

2008 6월 모의평가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운저.
 아아, [미타칼(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9.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짝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나
 저 입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T.S. 해결법!>

2006 9월 모의평가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트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10. <보기>를 (나)로 바꿔 썼다고 할 때,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임 따라서 갈까 부다.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갈까 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정, 보라매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 부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제비 되어, 임 계신 처마 끝에 짐을 짓고 노니다가, 밤중이면 입을 만나 만단 정회를 허고 지고, 뉘 년의 꼬임 듣고 영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T.S. 해결법!>

2013 9월 모의평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뿔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일토당도않은 구역질나는 놈들이 제가 쟈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폭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투리는 **조직** 밖에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 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혹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 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싹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 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 문翰(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11.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암조어(寒巖釣魚)」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

<T.S. 해결법!>